

## 지식융합미디어학부 필수과목(전공 예비)

강의언어 (학점)	과목명	과목설명
한국어 (1)	지식융합미디어 입문 (1학점)	<i>"team teaching"</i> 신입생이 입학한 첫 학기에 개설되며 학장의 주관 하에 본 지식융합미디어학부의 모든 전임교수님들이 2인 1조로 짝이 되어 매 주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만납니다. 해당 교수님들이 각자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영역에 관해 간단한 토크를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각 학생들이 추후 어느 교수님과 더 깊은 진로상담을 원하는지 정하여 2학년 이후 학생들이 나아가게 될 융합전공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i>"creative thinking"</i> '세상에 없던 사항을 생각하는 원리' '전혀 새로운 사항을 제시하는 화법' '새로운 조합(Combination)에 의해 New를 제작하는 테크닉'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물론 독창적인 사고의 수행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낸 국내외 사례들 또한 장르를 불문하고 중요한 교재로 활용됩니다. 크리에이티브적 사고가 특히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미디어 산업, 그 중에서도 광고를 비롯한 Strategic Communication의 영역에서의 실제 예들을 통해 심층 토론을 수차례 진행할 것이며, 매년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되어 전 세계인의 Creative Thinking의 수준을 가늠하는 본 분야 세계적 경쟁 무대인 '칸느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의 부문별 수상작들을 검토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필요한 조형의 원리를 여러 예술 작품과 디자인 작품을 보며 그 시각적 원리를 학습하고 디지털 카메라 등을 사용해 자신의 화면의 구성과 시각적 표현 방식도 다양하게 탐색합니다.
영어 (3)	The Art of Storytelling (3학점)	<i>"communication &amp; collaboration"</i> 본 과목은 콘텐츠 창작의 기본이 되는 스토리 아트와 스토리텔링 크래프트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스토리 개발, 다양한 목적 및 매체에 따른 스토리텔링 전략과 방법 탐색, 창의적인 적용과 응용의 과정을 실습한다.
	Data & AI (3학점)	<i>"computational thinking"</i> 인공지능은 반복되는 일을 자동화하고, 어려운 인간의 일을 돕는 등 인간 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함에서 비롯되었다. 과거에 인공 지능은 인간의 지식과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규칙을 컴퓨터 언어로 기술하는 방식이었다. 보다 최근, 컴퓨팅 파워의 성장과 인간 삶에 관한 데이터 축적이 급속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인공 지능을 이루는 기술은 데이터로부터 지식과 규칙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를 위한 기계 학습의 방식이 다양해졌다. 그 활용도에 있어서도 단순히 인간의 일을 돕는 수준에서 나아가 스토리텔링, 엔터테인먼트 등의 문화 분야와 음악, 미술 등의 예술 분야로까지 넓혀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데이터로부터 지식과 규칙을 학습하여 활용하기 위한 기초를 가르친다. 특히 최근, 기계학습 방법의 하나인 신경망 기법에 혁명적인 개선을 이루어졌고 딥러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실생활에까지 응용가능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본 수업에서는 데이터로부터 그 특징을 학습하는 신경망 기초 이론을 배우고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다.
	Critical Thinking for Social Inquiry	<i>"critical thinking"</i> Students will learn diverse perspectives and methods to understand human societies and seek solutions for social problems arising from societies. This course will offer students an opportunity to apprehend social phenomena not as an immediate manifestation of the natur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things and institutions but as historical constructs and social relations. In each week, students will be encouraged to cast ontological, epistemological and methodological questions to social affairs they encounter in daily life and scrutinise them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so doing, students will have a chance to imagine best possible socio-historical solutions to such social problems.

\* 신입생이 첫 해 한 학기에 2과목씩 모두 4과목을 수강하게 되는 전공예비 과목들(각 3학점씩)은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본인 고유의 융합전공을 시작하기 전 기반을 다지는 과목들로서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첨단 미디어기술을 통한 인문학적 상상력의 실현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